

##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한 정 민      조 민 수      홍 세 은      박 선 응<sup>†</sup>

고려대학교

의복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과 자기개념은 의복 선택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의복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을 고양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은 자기고양전략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자기고양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르시시즘이 일상생활에서의 의복 선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들로부터 선호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N = 201, 여자 100명)은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고, 연구 참여 당시에 착용했던 의복 그대로 촬영을 하였다. 4명의 연구자들이 12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의복 이미지를 코딩하였다. 추가적으로 참여자와는 다른 대학생 87명이 동일한 12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옷을 잘 입는 것은 어떻게 입는 것인지 평정하고, 이를 통해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prototype) 기준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나르시시즘, 특히 웅대한 과시와 옷을 잘 입는 전형성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남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었다.

주요어 : 나르시시즘, 의복 이미지, 자기표현, 자기고양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8017732).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선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삶의 과정이고, 잘못된 선택은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변에 놀러가는 복장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지 않고, 헤비메탈 음악을 노래하는 복장으로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하지 않는다. 또 의복은 부와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해야 할 때는 좋은 옷을 찾기 마련이다. 영화 <상의원>에서 중전이 화려하면서도 격식 있는 옷을 입고 등장하자 청나라 사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은 이러한 옷의 힘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복은 자기 자신의 표현이며(Eicher, Evenson, & Lutz, 2008),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과 자기개념은 의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에 대한 높은 숭상으로 대표되는 나르시시즘이 일상생활에서의 의복 선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기표현으로서의 의복

의복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다. 의복의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Eicher 등(2008)은 의복을 ‘제2의 피부(second skin),’ ‘가시적 자기(visible self)’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의복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없는 자기의 양상들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만질 수 있는 자기이자(Kaiser, 1985), 물질적 자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James, 1950). Goffman(1963, 1965)은 의복과 화장품이 타인에게 개인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체감 도구(identity kits)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복은 자존감 향상, 감정적 가치, 자기표현 등과 같은 심리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홍희숙, 류성민, 2009).

거시적인 수준에서 의복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또는 인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Cox & Dittmar, 1995). 즉 의복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확장이며, 자기를 표현하는 쉽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의복을 구매하거나 착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의복 선택 동기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떤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Kwon & Parham, 1994).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 중 나르시시즘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기이미지를 가리킨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중심주의와 특권 의식을 겸비하여 거만하고 남들로부터의 존경을 요구한다(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이들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상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John & Robins, 1994; Park & Colvin, 2014, 2015; Robins & Beer, 2001). 앞서 언급했듯, 의복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키나 체형 등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에 비해서 훨씬 더 손쉽게 꾸밈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복 착용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과 외모관리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이 높은 여대생들은 화장, 체중관리와 피부관리, 의복 선택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정명선, 2010). 역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연구에서도 나르시시즘은 외모관리행동은 물론 의복을 통해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복 과시소비성향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김혜정, 2008).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의복관리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인식될 정도로 남들과 다르게 의복을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착용한 의복 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특히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이 남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나르시시즘과 의복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Oltmanns, Friedman, Fiedler & Turkheimer, 2004; Paulhus, 1998). 낯선 사람들과의 첫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향적이고, 우호적이고, 적응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7주 후에는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호성이 떨어지고, 적응적이지 않으며, 거만하고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Paulhus, 1998). Back, Schmukle과 Eglloff(2010)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왜 남들로부터 좋은 첫인상을 받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나르시시즘과 좋은 첫인상 사이의 관계는 잘 차려입은 의복, 매력적인 얼굴 표정 등에 의하여 매개되었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옷을 더 잘 차려입고, 그러한 옷차림이 좋은 첫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즘과 의복을 포함한 외모관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속 연구에서도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남들과 구분되는 외모관리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Holtzman과 Strube(2013)는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 번 촬영하였다. 첫 번째 사진은 연구 참여를 위해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두 번째 사진은 회색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과 장신구를 없애거나 수염을 자르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앤 후에

촬영하였다. 첫 번째 사진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진 속 주인공을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이라 평가했지만, 화장을 비롯한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을 통제한 두 번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외모를 더 잘 가꾼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하게, Vazire, Naumann, Rentfrow와 Gosling(2008)의 연구에서도 나르시시즘은 화려하고 비싸며 옷맵시가 좋은 의상의 착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평범한 의상의 착용과는 부적 인 상관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서 성별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했던 연구에서 패셔너블한 옷, 스타일이 좋은 옷, 비싼 옷, 깔끔한 외양, 외모 관리에 들이는 시간, 매력도 등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르시시즘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Vazire et al., 2008). 또 나르시시즘과 신체적 매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사용, 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성차가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다(Holtzman & Strube,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잘 입은 옷’ 사이의 관계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고, 또 둘 사이의 관계가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 나르시시즘과 그 하위 요인

나르시시즘은 여러 다양한 정신적, 행동적 특성들을 묘사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고, 나르시시즘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나르시시즘 척도인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Raskin & Terry, 1988)는 서로 구분되는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위 요인을 구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어 왔다. Raskin과 Terry(1988)의 경우 권위, 자부심, 우월성, 과시, 착취, 허영심, 특권의식의 7개

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나, Emmons(1984, 1987)는 특권의식/착취, 리더십/권위, 우월성/오만, 자기몰두/자기찬미의 4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 Corry, Merritt, Mrug와 Pamp(2008)은 리더십/권위와 과시/특권의식의 2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Ackerman, Witt,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와 Kashy(2011)가 리더십/권위, 웅대한 과시, 특권의식/착취의 3요인을 제시한 후로는 3요인으로 묶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NPI를 13문항의 짧은 형태로 만든 연구에서도 역시 3개의 하위 요인을 제시하였다(Gentile, Miller, Hoffman, Reidy, Zeichner, & Campbell, 2013).

3개의 하위 요인 중 리더십/권위는 지도자가 되거나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즐기는 특성을 가리키며,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다. 웅대한 과시 요인은 타인에 비해 우월성을 느끼고 자신의 뛰어난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특성을 가리키며,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특권의식/착취 요인은 대인관계에서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고 타인을 착취하고, 상대를 조종하는 것에 능한 특성으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다.

리더십/권위, 웅대한 과시, 특권의식/착취가 모두 나르시시즘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Ackerman et al., 2011). 리더십/권위 요인은 리더십 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으로, 외향성이나 전반적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등 나르시시즘의 적응적 측면을 나타낸다. 반면 웅대한 과시 요인은 자기몰두, 허영, 우월성, 그리고 과시 경향성 등의 특성으로 대

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웅대한 과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주목받기를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든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특권의식/착취 요인은 타인을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특성을 뜻한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한다. 따라서 이 요인은 반사회 경향성,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 등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 나르시시즘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나타낸다(Ackerman et al., 2011).

나르시시즘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웅대한 과시 요인은 신체를 비롯한 외적인 부분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관심을 구하는 나르시시즘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웅대한 과시 요인이 SNS 상에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고,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는 등의 홍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Carpenter, 2012; Sorokowska, Oleszkiewicz, Frackowiak, Pisanski, Chmiel, & Sorokowski, 2016).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나르시시즘의 하위 요인 중 웅대한 과시 요인이 의복 착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한 의복 이미지 측정

나르시시즘과 의복 착용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본 몇몇 외국 연구들의 경우 참여자들의 실제 옷차림을 촬영하고, 그 특성을 코딩하여 연구한 반면(Back et al., 2010; Holtzman & Strube, 2013; Vazire et al., 2008), 국내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여 의복 태도나 의복 행동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선재(1991)는 의복 태도라는 개념을 의복에 두는 상대적인 가치나 의복을 중요시하는 이유로 정의하고, 신체적 외관, 개성의 표현, 인상형성, 승인성, 지위의 상징, 개인적 만족, 무관심의 7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

하여 측정하였다. 김광경, 이금실과 정미실(2001)은 어떠한 목적 또는 이유로 의복을 착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성추구, 신체보완, 사회적 인정, 성적 매력의 4가지 하위 변인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의복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옷을 잘 입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실제적인 의복 착용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첫째, 의복 착용자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착용자의 의복을 관찰하고 평정하였다. 의복 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하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복의 형태, 색, 재질 등에 의해 좌우된다(류숙희, 김보연, 2001). 본 연구에서는 의복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류숙희, 김보연, 2001; 한상미, 황선정, 김일, 2013)을 수정, 보완하여 ‘수수한-세련된,’ ‘캐주얼한-포멀한,’ ‘보수적인-혁신적인’ 등의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둘째,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한 전형성(prototype) 기준 점수를 마련하였다. 색감이 좋거나, 재질이 좋다는 등 개별적인 특징 하나가 뛰어나다고 해서 옷을 잘 입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잘 차려입은 의복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잘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복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입은 옷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 집단과 같은 연령대의 별도의 집단에게 20대 남자와 여자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입는다는 것인지에 대해 각각 묻고, 이에 따른 결과를 평균 내어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한 전형성 기준 점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형성 기준을 통해 어떤 옷차림이 잘 입은 옷차림인지 측정할 수 있다.

#### 연구 개요

본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자기보고 형

식으로 작성된 나르시시즘 척도에 응답하고, 참여자들의 옷차림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되었다. 촬영된 옷차림은 12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4명의 평정자들에 의해 그 특징이 평정되었다. 또 참여자들과는 별도의 대학생들에게 20대 남자와 여자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입는 것인지에 대해 각각 묻고, 그 결과를 옷 잘 입는 것의 전형성 기준 점수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은 개별 항목과 전형성의 두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개별 항목 차원에서는 의복 이미지를 평정한 각 항목에서 성차가 있는지, 각 항목과 나르시시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의 의복 이미지가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적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르시시즘은 전체 점수와 3가지 하위 항목(Ackerman et al., 2011) 모두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개별 항목 사이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나르시시즘 특히 웅대한 과시가 높은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즉 비슷한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교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연구에 대해 공지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총 210명이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에 필요한 촬영을 하지 못하였거나 설문을 끝마치지 못한 9명을 제외한 201명(여자 100명, 평균 나이 =

22.09세)에 대한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자료는 성격과 사회적 지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출판된 논문이 있지만(Hyun, Park, & Park, 2016), 본 논문에서 보고하는 결과는 출판되지 않았다. 본 논문과 관련 있는 절차만 기술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설문과 동영상 촬영에 대한 안내 사항과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제공받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과 촬영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관련된 척도들에 답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3초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사진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동영상 중 한 장면을 포착하여 사진 파일로 변환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 파일은 의복 이미지를 평정하는데 사용되었다.

#### 측정 도구

#####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해 40문항으로 구성된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PI; Raskin & Terry, 1988)를 사용하였다. NPI는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사회 및 성격심리 분야에서 수행되는 나르시시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Cain, Pincus, & Ansell, 2008). NPI 척도는 원래 각 항목마다 두 진술문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하나의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여부를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 Correll, 2003; Park, Ferrero, Colvin, & Carney, 2013). 나르시시즘 점수는 총점과 더불어 Ackerman 등(2011)이 제안한 3개의 하위 요인의 점수 또한 산출하였다. 전체적인 나르시시즘 점수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 리더십/권위는 .84, 웅대

한 과시는 .81, 특권의식/착취는 .52로 기존 연구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Ackerman et al., 2011).

##### 의복 이미지

각 참여자의 의복 이미지는 4명의 평정자(의류학 분야 박사과정 2명과 심리학 분야 석사과정 2명)에 의해 평정되었다. 평정을 위해서 의복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12개의 문항을 채택하였다(표 1 참조; 류숙희, 김보연, 2001; 한상미 등, 2013). 평정에 앞서 의류학 박사과정생으로부터 각 문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몇 차례의 연습 과정을 거쳤다. 각 평정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나와 있는 사진을 살핀 후 참여자의 의복 이미지를 12개 문항을 이용하여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참여자들의 성격 측정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의복 이미지를 평정하였다. 또한 얼굴이 의복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그림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렸다.

#####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한 전형성(prototype) 기준 점수

어떤 의복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잘 입는 것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는 87명의 대학생들에게 옷을 잘 입는 20대 남성의 이미지와 옷을 잘 입는 20대 여성의 이미지를 의복 이미지 평가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12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각 항목별 평균값은 표 4에 제시되었다.

## 결 과

##### 개별 항목 수준 분석

**성별에 따른 의복 이미지 차이**

성별에 따라 착용한 의복 이미지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자들의 이미지 평정 점수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복 이미지 항목 중 보수적인-혁신적인, 남성적인-여성적인, 점잖은-발랄한, 차가운-따뜻한, 부드러운-딱딱한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착용한 의복이 더 혁신적이고, 여성적이고, 발랄하였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사이의 관계**

나르시시즘이 의복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르시시즘은 수수한-세련된, 캐주얼한-포멀한 이미지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점잖은-발

랄한, 장식이 없는-장식이 많은 이미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은 남자 대학생은 나르시시즘이 낮은 대학생에 비하여 세련되고 포멀하면서 점잖고 상대적으로 장식이 없는 이미지의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즘의 하위 3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리더십/권위는 점잖은-발랄한과 부적 상관관계를, 특권/착취는 점잖은-발랄한, 장식이 없는-장식이 많은 이미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웅대한 과시는 하위 요인 중 의복 이미지를 가장 많이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웅대한 과시는 수수한-세련된, 캐주얼한-포멀한, 보수적인-혁신적인, 단정하지 않은-단정한 이미지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장식이 없는-장식이 많은 이미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자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와 나르시시즘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나르시시즘과 보수적인-혁신적인, 남성적인-여성적인, 점잖

표 1. 성별에 따른 의복 이미지의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

의복 이미지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
	남자	여자	
수수한-세련된	3.09 (0.93)	3.28 (1.00)	-1.39
캐주얼한-포멀한	3.01 (0.95)	2.92 (1.03)	0.68
보수적인-혁신적인	2.76 (0.55)	3.17 (0.84)	-4.01***
남성적인-여성적인	2.79 (0.77)	4.28 (0.96)	-12.09***
점잖은-발랄한	3.95 (0.73)	4.19 (0.80)	-2.19*
시대에 맞지 않는-시대에 맞는	3.85 (0.62)	3.92 (0.63)	-0.78
단정하지 않은-단정한	3.90 (0.82)	3.82 (0.71)	0.70
젊어 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4.15 (0.45)	4.06 (0.59)	1.17
장식이 없는-장식이 많은	3.49 (0.73)	3.37 (0.85)	1.05
차가운-따뜻한	3.68 (0.78)	3.96 (0.82)	-2.50*
무채색의-컬러풀한	3.66 (1.09)	3.72 (1.24)	-0.36
부드러운-딱딱한	4.25 (0.90)	3.49 (0.94)	5.84***

\*p ≤ .05. \*\*p ≤ .01. \*\*\*p ≤ .001.

표 2. 남자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와 나르시시즘의 상관관계

의복 이미지	나르시시즘			
	총점	3요인		
		리더십/권위	웅대한 과시	특권의식/착취
수수한 - 세련된	.23*	.08	.34**	.17
캐주얼한 - 포멀한	.23*	.13	.20*	.17
보수적인 - 혁신적인	.08	.04	.21*	-.01
남성적인 - 여성적인	.02	-.08	.15	-.06
젊은 - 발달한	-.23*	-.21*	-.16	-.22*
시대에 맞지 않는 - 시대에 맞는	.11	.01	.18	.10
단정하지 않은 - 단정한	.13	.00	.22*	.16
젊어 보이는 - 나이 들어 보이는	.14	.15	-.03	.17
장식이 없는 - 장식이 많은	-.24*	-.17	-.24*	-.30*
차가운 - 따뜻한	-.06	-.11	-.04	-.03
무채색의 - 컬러풀한	-.09	-.13	-.06	-.09
부드러운 - 딱딱한	-.14	-.06	-.15	-.15

\* $p \leq .05$ . \*\* $p \leq .01$ .

표 3. 여자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와 나르시시즘의 상관관계

의복 이미지	나르시시즘			
	총점	3요인		
		리더십/권위	웅대한 과시	특권의식/착취
수수한 - 세련된	.13	.02	.21*	.02
캐주얼한 - 포멀한	.04	.02	.05	-.06
보수적인 - 혁신적인	.25*	.10	.33***	.05
남성적인 - 여성적인	.20*	.10	.31**	.04
젊은 - 발달한	.23*	.14	.25*	.04
시대에 맞지 않는 - 시대에 맞는	.18	.06	.24*	.06
단정하지 않은 - 단정한	.00	.02	.01	.06
젊어 보이는 - 나이 들어 보이는	-.09	-.04	-.05	-.12
장식이 없는 - 장식이 많은	.03	-.04	.08	-.03
차가운 - 따뜻한	.13	.12	.11	.13
무채색의 - 컬러풀한	-.01	-.03	-.02	.00
부드러운 - 딱딱한	.01	.02	.04	.07

\* $p \leq .05$ . \*\* $p \leq .01$ . \*\*\* $p \leq .001$ .

은-발랄한 이미지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은 여자 대학생일수록 혁신적이고 여성적이며 발랄한 이미지의 옷을 입는 것이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을 3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리더십/권위와 특권의식/착취는 의복 이미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웅대한 과시는 수수한-세련된, 보수적인-혁신적인, 남성적인-여성적인, 점잖은-발랄한, 시대에 맞지 않는-시대에 맞는 이미지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전형성 수준 분석

성별에 따른 전형성 기준 점수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기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2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표 4). 즉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이 어떻게 입는다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의복 이미지 묘사에 사용되었던 각 항목들의 점수(87명의 학생들이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입는 것인지에 대해 응답한 점수)가 척도상의 중간값이었던 4점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개 각 항목별로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각 성별로 총 12회).

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는 3개 항목, 여자의 경우는 1개 항목이 4점으로부터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항목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20대 남자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비교적 세련되고, 남성적이고, 점잖고, 시대에 맞고, 단정하고,

표 4. 성별에 따른 전형성 기준 점수의 기술통계와 일표본 및 반복측정 t-검정

의복 이미지	전형성 기준 점수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 t
	남자	여자		
수수한 - 세련된	4.71 (1.26)***	5.06 (1.16)***		-2.41*
캐주얼한 - 포멀한	3.95 (1.16)	3.55 (1.09)***		2.34*
보수적인 - 혁신적인	3.94 (1.06)	4.36 (1.00)***		-2.99**
남성적인 - 여성적인	2.57 (0.98)***	5.31 (1.02)***		-15.85***
점잖은 - 발랄한	3.23 (0.98)***	4.64 (1.17)***		-9.52***
시대에 맞지 않는 - 시대에 맞는	5.74 (1.01)***	5.93 (0.96)***		-2.62**
단정하지 않은 - 단정한	5.67 (1.04)***	4.78 (1.24)***		6.28***
젊어 보이는 - 나이 들어 보이는	2.92 (1.24)***	2.45 (1.02)***		3.79***
장식이 없는 - 장식이 많은	2.75 (1.01)***	4.05 (1.15)		-9.49***
차가운 - 따뜻한	3.90 (0.94)	4.43 (1.07)***		-3.58***
무채색의 - 컬러풀한	3.39 (1.00)***	4.46 (0.97)***		-7.88***
부드러운 - 딱딱한	3.44 (1.01)***	3.10 (0.98)***		2.39*

주. ‘남자’열과 ‘여자’열 밑의 \*은 4점을 기준으로 한 일표본 t-검정의 유의성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표 5. 나르시시즘과 전형성 점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나르시시즘				성별	나이	전형성 점수
	총점	리더십/권위	웅대한 과시	특권의식/착취			
나르시시즘 총점	-						
리더십/권위	.88***	-					
웅대한 과시	.78***	.50***	-				
특권의식/착취	.63***	.50***	.44***	-			
성별(남=1, 여=2)	-.03	-.13	.16*	-.04	-		
나이	.07	.12	.02	-.09	-.25***	-	
전형성 점수	.19**	.08	.24***	.16*	.07	-.19**	-
평균	4.29	4.44	4.11	3.88	-	22.09	.14
표준편차	0.65	0.84	0.90	0.92	-	2.13	.38

\* $p \leq .05$ . \*\* $p \leq .01$ . \*\*\* $p \leq .001$ .

젊어 보이고, 장식이 없고, 무채색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여기었다. 한편, 20대 여자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비교적 세련되고, 캐주얼하고, 혁신적이고, 여성적이고, 발달하고, 시대에 맞고, 단정하고, 젊어 보이고, 따뜻하고, 컬러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여기었다.

#### 각 참여자별 전형성 점수 산출 방법

참여자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참여자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프로파일(profile)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4명의 평정자들로부터 얻은 12항목의 점수와 표 4에서 제시된 12개의 남성 전형성 기준 점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이몽룡이 각 항목에서 평정자들로부터 얻은 점수가 5.20, 4.45, 3.92, 2.61, 3.33, 5.80, 5.78, 3.55, 2.88, 3.93, 3.45, 3.23이었다고 치자. 이 12개의 점수와 표 4에 제시된 남성 전형성 기준 점수인 4.71, 3.95, 3.94, 2.57, 3.23, 5.74, 5.67, 2.92, 2.75, 3.90, 3.39, 3.44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상관계수는 .97이

나온다. 이 상관계수는 이몽룡이 착용했던 의복 이미지가 옷을 잘 입는 전형과 무척 유사하다는 것을, 즉 이몽룡이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관계수가 각 개인별로 계산되었고 전형성 점수로 사용되었다.<sup>1)</sup> 점수가 높을수록 옷을 더 잘 입을 것을 가리킨다.

#### 나르시시즘과 전형성 점수 사이의 관계

전형성 점수와 나르시시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형성 점수는 나르시시즘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옷을 잘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즘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웅대한 과시와 특권의식/착취가 전형성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나이와 전형성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옷을 더 잘 입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즘 점수에 있어 남성( $M = 4.31$ ,  $SD = 0.62$ )과 여성( $M = 4.27$ ,  $SD = 0.70$ )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99) = 0.40$ ,  $p = .69$ .

1) 통계분석을 위해 각 상관계수는 Fisher의  $r$ -to- $z$  transformation 공식을 이용하여  $z$ 점수로 전환되었다.

나르시시즘과 전형성 점수 사이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르시시즘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b = -.05$ ,  $t = -0.64$ ,  $p = .52$ . 나르시시즘의 하위 요인과 성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t|s < 0.75$ ,  $ns$ . 이는 남녀 상관없이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성별을 통제했을 때 나르시시즘 총점( $b = .12$ ,  $t = 2.99$ ,  $p = .003$ ), 웅대한 과시( $b = .11$ ,  $t = 3.60$ ,  $p < .001$ ), 특권의식/착취( $b = .06$ ,  $t = 2.10$ ,  $p = .04$ )는 전형성 점수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이 의복 착용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지, 특히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들로부터 선호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명의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의복 이미지를 12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평정하였고, 별도의 집단으로부터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개별 항목 수준의 분석 결과, 나르시시즘이 높은 남자 대학생일수록 세련되고 포멀하며 장식이 없고 점잖은 이미지의 의복을 착용하였고, 나르시시즘이 높은 여자 대학생일수록 혁신적이고 발랄한 여성적인 이미지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즘과 옷을 잘 입는 전형성 점수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나르시시즘 총점과 하위 3요인 중 웅대한 과시와 특권의식/착취요인이 옷을 잘 입는 전형성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둘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는 나이의 많고 적음, 성별과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몸단장에 신경을 쓰고 패셔너블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외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행연구(Back et al., 2010; Davis, Dionne, & Shuster, 2001; Holtzman & Strube, 2013; Vazire et al, 2008)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나르시시즘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웅대한 과시 요인이 옷을 잘 입는 전형성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웅대한 과시 요인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뛰어난을 신체와 외모 등, 외적인 부분을 통해 과시하려 하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Ackerman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웅대한 과시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특권의식/착취 요인 또한 전형성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의복이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김해정, 2008), 특권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의복 이미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으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여 외모 관리행동을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참여자가 착용한 의복의 이미지를 제 3의 평정자가 측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나르시시즘과 의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참여자와는 별도의 집단으로부터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기준을 도출하고 나르시시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집단으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연구 디자인으로, 단순히 자기보고식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분석에 비해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는 있으나 그 함의가 더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Cronbach & Meehl, 1955).

최근 한국에서 나르시시즘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이선경 등, 2014),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동 특성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나르시시즘이라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실질적인 의복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르시시즘과 소비행동 간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Cisek, Sedikides, Hart, Godwin, Benson, & Liversedge, 2014), 향후 나르시시즘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 전략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점수를 대학생들로부터 수집하였기 때문에 디자이너 등 패션관련 전문가를 통한 수집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상형성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남을 고려할 때, 실험참여자들과 옷을 잘 입는 것의 전형성 점수를 평정하는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형성이 가능한 일반 20대 대학생로부터 20대 대학생의 옷을 잘 입는 전형성 기준 점수를 수집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이 아닌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 이미지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얼굴을 가렸다. 이는 얼굴이 갖는 영향을 없애고 순수하게 의복 이미지 자체와 성격적 특성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옷을 잘 입는 것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김새에 맞게 옷을 잘 입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얼굴이 가려졌는지 드러났는지에 따라 외모 평정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얼굴과 달리 체형은 통제하지 않았다. 옷을 잘 입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체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형 또한 의복 관련 연구를 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

의 체형에 어울리는 옷을 선택해 입는 것도 옷을 잘 입는 것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체형이 옷을 잘 입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착용한 의복 상태에 따라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자신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oltzman과 Strube(2013)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평상시 옷차림대로 옷을 입었을 경우와 색과 무늬가 없는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신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의복관리행동을 연구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연구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일상적인 옷차림을 연구하였지만, 소개팅이나 데이트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옷차림이 달라질 수 있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이 이성에게 더 많은 호감을 얻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옷차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 결과 특정한 의복 이미지를 추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자존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9), 95-102.
- 김해정 (2008). 자기에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숙희, 김보연 (2001). 자기 이미지가 의복 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9(5), 734-746.
- 박은정, 정명선 (2010). 여대생의 자기에적 성격과 자존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

- 향. *복식문화연구*, 18(4), 717-730.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일반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이선재 (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73-187.
- 한상미, 황선정, 김일 (2013). 패션브랜드와 아티스트 이미지 유사성 차이가 콜레보레이션 경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2), 15-27.
- 홍희숙, 류성민 (2009). 웰빙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의 탈물질주의 가치 성향 및 의류상품 추구태도. *소비문화연구*, 12(2), 39-66.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 Back, M. D., Schmukle, S. C., & Egloff, B. (2010). Why are narcissists so charming at first sight? Decoding the narcissism-popularity link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32-145.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38-656.
- Campbell, W. K., Reeder, G. D., Sedikides, C., & Elliot, A. J.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3), 329-347.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arpenter, C. J. (2012). Narcissism on Facebook: Self-promotional and anti-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4), 482-486.
- Cisek, S. Z., Sedikides, C., Hart, C. M., Godwin, H. J., Benson, V., & Liversedge, S. P. (2014). Narcissism and consumer behaviour: A review and preliminary findings. *Frontiers in Psychology*, 5, 232.
- Corry, N., Merritt, R. D., Mrug, S., & Pamp, B. (200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0(6), 593-600.
- Cox, J., & Dittmar, H. (1995). The functions of clothes and clothing (dis) satisfaction: a gender analysis among British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Policy*, 18(2), 237-265.
- Cronbach, L. J., & Meehl, P. E. (195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4), 281-302.
- Davis, C., Dionne, M., & Shuster, B. (2001).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appearance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1), 21-30.
- Eicher, J. B., Evenson, S. L., & Lutz, H. A. (2008). *The visible self: Global perspectives on dress, culture and society* (3r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Gentile, B., Miller, J. D., Hoffman, B. J., Reidy, D. E., Zeichner, A., & Campbell, W. K. (2013). A test of two brief measures of grandiose narcissism: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3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 Inventory-16.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120-1136.
- Goffman, E. (1963). *The mentally ill and management of personal front*. In M. E. Roach & J. B. Eicher (Eds.), *Dress and ident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Goffman, E. (1965). *Identity kits*. In M. E. Roach & J. B. Eiche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Holtzman, N., & Strube, M. (2013). People with dark personalities tend to create a physically attractive veneer.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4), 461-467.
- Hyun, N. K., Park, Y., & Park, S. W. (2016). Narcissism and gift giving: Not every gift is for oth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6, 47-51.
- James, W. (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206-219.
- Jordan, C. H., Spencer, S. J., Zanna, M. P., Hoshino-Browne, E., & Correll, J. (2003). Secure and defensive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969-978.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Kwon, Y. H., & Parham, E. 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 Oltmanns, T. F., Friedman, J. N., Fiedler, E. R., & Turkheimer, E. (2004). Perceptions of people with personality disorders based on thin slices of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3), 216-229.
- Park, S. W., Ferrero, J., Colvin, C. R., & Carney, D. R. (2013). Narcissism and negotiation: Economic gain and interpersonal lo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5(6), 569-574.
- Park, S. W., & Colvin, C. R. (2014). Narcissism and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friends' percept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2(4), 278-286.
- Park, S. W., & Colvin, C. R. (2015). Narcissism and other-derogation in the absence of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83(3), 334-345.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197-1208.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40-352.
- Sorokowska, A., Oleszkiewicz, A., Frackowiak, T., Pisanski, K., Chmiel, A., & Sorokowski, P. (2016). Selfies and personality: Who posts self-portrait photograph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0, 119-123.
- Vazire, S., Naumann, L. P., Rentfrow, P. J., & Gosling, S. D. (2008). Portrait of a narcissist: Manifestations of narcissism in physical appeara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6), 1439-1447.

1 차원고접수 : 2016. 01. 09.

수정원고접수 : 2016. 03. 14.

최종게재결정 : 2016. 04. 11.

## **Narcissism and Clothing**

**Jung-Min Han**

**Min Su Cho**

**Se Eun Hong**

**Sun W. Park**

Korea University

People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eir clothing, and self-concept plays a key role in the process. In fact, clothing can be used as a self-enhancing tool by drawing positive feedback from others. Given that narcissistic individuals routinely utilize different techniques for the purpose of self-enhancement, they may use their clothing as an effective way to enhance themselves.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whether narcissistic individuals who are obsessed with grandiosity actually dress well in everyday life. Participants ( $N = 201$ ; 100 women)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narcissism, and their pictures were taken. Twel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lothing were rated by 4 coders. In addition, the prototype of "well-dressed" using the same 12 items was obtained by 87 college students. We found that narcissism, particularly grandiose exhibition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well-dressed" prototype scores.

*Keywords* : narcissism, clothing, self-presentation, self-enhancement